

월요광장



노 경 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광주를 정의로운 도시로 만들자

시의 계획과 개발 과정을 추적·분석하면서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포부다. 요즘 우리 학계에서 이른바 선진국에서 나온 개념이나 이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논의는 이곳저곳에서 분분하다. 그 어떤 분야보다 공간을 다루는 도시계획분야가 가장 먼저 그래야만 한다는 게 나의 평소 지론이었다. 그래서 "공간 조성에 보다 앞서있는 도시들을 무작정 따라가는 무모함도, 모범이 되는 모델 없이 우리 것만 고집하는 아둔함도 버려야 한다"라고 명쾌하게 지적한 기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다. 먼저, 공간의 가치는 모두가 공유해야 하며, 개발 이익은 적절한 배분을 통해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를 조성하는 기준과 원칙,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하나씩 실현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계속 살고 싶은 공간으로 도시가 계획되는 것이다.

특히 특정 세력이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일부 기술직 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있는 계획 권한을 시민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공간에서의 민주주의이자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토 공간에서의 정의로운 모든 국민은 국토 공간 어디서나 교육, 의료, 문화, 편의 등의 공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이 몰리면서 지방의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져 결국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토 불균형 심화의 원인을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계속된 국토 및 도시계획과 개발 방식에서 찾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수도권의 확장 및 강화를 억제하고 정부 부처와 공기업, 대학, 대기업을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권장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파헤친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도시개발 관련 연구는 많은 경우 권력과 자본(부동산·건설회사)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 언론사 기자로서 정부나 업계의 입김에 반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터인데, 부동산 개발과 투기의 작동 과정을 파헤친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정의로운 도시라는 주제의 심층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큰 걸음으로 보인다. 발전하는 후학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나도 그동안 미뤄왔던 연구들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마무리할 결심을 해본다. 그리고 나니 처음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시샘과 질투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새로 낸 책을 읽을 때면, 내 마음 한 구석에서는 늘 질투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최근에 출판된 광주일보 윤현석 기자의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처럼 내용이 좋은 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동안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라고 자책하게 된다. 하지만 시샘은 이내 부러움으로 바뀐다.

요즘은 아파트 시세가 화두(話頭)고,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대다.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는 적절한 시점이 나왔다. 기존 시기지의 전면 철거며 재개발로 인해 하루아침에 추억과 기억의 공간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추상적인 사변(思辨)이나 주관적인 감상을 뛰어넘어 이론과 실제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공론장은 늘 아쉬웠다.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지적 궁금증을 달래기에 적격이다.

또한 이 책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광주라는 실제 도

수필의 향기



김 향 남
수필가

즐거운 채집생활

렵 채집하던 DNA가 순식간에 바뀌지도 않는다. 산업화·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급감했어도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도 수렵 채집의 습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그 DNA 또한 여전히 견재하다. 그것은 지금 여기 나에게도 흐르고 있다. 산짐승을 잡거나 물고기를 낚는 것은 아니지만 바닷가를 지나다가도 조개나 소라를 보면 일단 잡고 본다. 혹시 더 있나 주변도 살핀다. 산길을 걷다가 밤이나 산딸기를 보면 화들짝 반갑다. 썩이나 미나리를 채취하는 것은 빠지지 않는 연중행사다.

덕분에 우리집 냉장고에는 철 따라 채취한 것들이 '선물'처럼 차 있다. 햇살 좋은 강둑에서 캐온 썩 몇 덩어리, 쭈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껍질 벗기는 고생까나 했던 은행알 두 봉지, 새콤달콤 맛도 좋고 빛깔도 좋은 살구써 한 병, 아카시꽃 효소, 말린 뽕잎, 마뽕, 취나물, 냉이, 민들레... 모두 어디 아외로 놀러 갔다가 혹은 산길을 걷다가 황재라도 만난 듯이 흐뭇하게 수확해온 것이다. 살고 벗기고 즐기고 팔아서 살뜰하게 모셔 두니, '갯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저절로 이해되었다고 할까.

자연이 안겨준 '뽕밭의 선물'은 더 오래전으로 올라간다. 어렸을 때, 배이었는데 지 여름이었는데 지 여른 몹시 '뿌듯한' 날이 있었다. 동네 앞 강물이 죄다 빠져나가고 맨바닥을 드러낸 날이었다. 강바닥은 금세 조무래기들 차지가 되었다. 그 천혜의 놀이터를 그냥 놓리 가 있겠는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놓고 있는데 발바닥에 몽툰 밍글이 끼는 게 느껴졌다. 뭐지? 뽕까? 더듬더듬 조심조심 잡아 올린 그것은 유난히 크고 시커멓고 딱딱하고 반질거렸다. 흥합보다 더

크고 더 통통하고 더 까만 그것을 누군가 '마개!' 하고 소리쳤다. 우리는 일제히 '마개잡이'가 되었다. 그 큰 마개가 손에 잡힐 때면 금덩이로도 거머쥔 듯 환호성을 질렀다. 이윽고, 짹 입을 벌린 채 탐스러운 썩처럼 밥상 위에 올랐을 땐 짜릿함을 넘어 뿌듯함과 흐뭇함까지 동시에 밀려왔다.

'마개' 뿐 아니라 짙레손, 폐비, 살구, 오동개, 산딸기, 알밤 들도 우리의 '사냥감'이었다. 지천에 널렸다고 하지만 찾지 않으면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 그것들을 찾아 우리는 부러 나서기도 하고 놀다가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다. 일부러든 우연하든 그때마다 안겨 온 것은 기쁨이고 환희였다. 산으로 들로 혹은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맞이한 그 '선물' 같은 시간으로 우리의 키는 쑥쑥 자라났을 것이다.

자연에서는 누구도 가만하지 않다고 하던가. 어떤 분은 주말마다 '농장' 가는 재미로 산다고 한다. 농장? 농장이라는 말이 귀가 솔깃하지만, 그분의 농장이란 다름 아닌 산이고 들만이고 자연이라는 사실이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아니 탈레탈레 빈손으로 나서도 돌아올 땐 제법 가득 차서 온다는, 나물도 캐고 열매도 줍고 건강도 챙겨온다는 자연이라는 농장. 마음속까지 순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천연 세탁제란다. 그분의 워트에 절로 고개를 끄덕인다.

골든 단풍도 다 떨어지고 겨울이 코 앞이다. 당분간 자연은 가만히 있으리라. 할뻬는 듯 앙상한 듯 아무 말도 안 하리라. 깊고 깊은 침묵으로 시간의 성자가 될 것이다. 그동안은 나도 잠자코 있으리라. 그의 침묵을 배우리라. 봄이 오면 다시 길을 나서리라. 그런 날은 '뿌듯함' 한 접시 밥상에 오르리라.

지산축구대회 100년, 또 다른 100년을 기약하며

로 편입돼 현재는 광주시 북구 건국동, 양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지산초, 양산초, 광주북초, 주암초 등 4개 학교 졸업생들이 추석 날 모두 한자리에 모여 축구를 즐기고 있다. 명칭 또한 '지산지역 한마당 축구대회'로 바뀌었다.

현재 매년 북구 연례동에 있는 K&T 연초제조장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도 기수별 주관에서 지산면 지역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지산체육회 주관으로 바뀌 체계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미있었던 제 100회 지산지역 한마당 축구대회는 지난 9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성황리에 치러졌다.

초창기 축구대회를 생각하면 다채로운 풍경이 떠오른다. 지금처럼 공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남은 벼짚을 이용해 공을 만들었는데, 이를 '짚공'이라 불렀었다. 지역 마을 청년들은 축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짚공을 가지고 추수가 끝난 논·밭 등지에서 차고 뛰면서 실력을 키우기도 했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지역민들에게 추석 날과 축구 대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었던 것 같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 추석 날 대회 기간에는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고향 사람들끼리 공을 차고, 뛰면서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며, 지역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단합력과 정통성을 지켰었다. 또한 지산축구대회는 각 마을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을 지닌 청년들의 경쟁과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이러한 지역민들의 결속력과 자긍심을 이끌어낸 대회는 현재까지도 지역과 지역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지산지역 축구대회 100년을 돌아보니 우리 지역에서 축구대회를 통해 단결력과 애향심,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지산체육회는 새로운 100년을 맞아 지역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 시킨 지산축구대회를 단순한 지역의 체육 행사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역 문화유산으로도 약식시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한다.

먼저 그 발걸음의 시작으로 올해 '지산체육회'로 명칭을 정해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으며 지역 내 '지산지역축구대회 100회 기념비(가칭)'를 건립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100년의 역사와 경험을 토대로 유구한 전통의 '지산지역 한마당 축구대회'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마당 축제가 돼 지역의 빛나는 희망과 꿈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풍요로운 미래가 펼쳐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社說

달빛고속철도 양보, 이젠 정부가 답할 차례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고속철도 대신 복선의 일반철도로 건설하기로 했다. 당초 복선·고속철도 건설을 요구해 왔는데 경제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반영해 일반철도로 양보한 것이다. 양 자치단체는 다만 일반철도로 건설하되 복선화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동서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달빛고속철도 건설 논란 주장하기 보다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양 자치단체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결정 배경에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운행 시간이 2분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198.8km인 달빛고속철도는 시속 350km의 고속철도로 건설하더라도 정차역이 10개에 달해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83.55분으로, 시속 250km의 일반철도로 건설할 때 걸리는 86.34분과 불과 2분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예상 사업비는 복선 기준으로 고속철도가 11조 2999억 원에 달해 일반철도 8조 7110억 원보다 2조 5889억 원이나 많이 든다. 2분 빨리 오가겠다고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달빛고속철도가 단선·일반철도로 반영돼 있는데 대형 국책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따진다면 지방은 영원히 소멸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단선을 복선으로 변경한 '원주-강릉' 철도를 보더라도 설계에서 착공까지 10년이 걸렸다.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경찰 인사 비위 근절, 폐쇄적 시스템 바꿔야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촉발된 지역 경찰 관련 수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사 무마와 함께 경찰 승진 인사 등을 둘러싼 청탁에도 A씨가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직무해제가 이어지는 등 경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이번 비위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경찰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이 청탁과 부정부패를 키워왔기 때문이다. 심사나 특진 등 경찰 내부 인사 과정에서 승진의 기초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의 점수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데다, 결정권이 있는 고위직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서류이 바뀌고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인사는 경감까지는 근속하면 승진할 수 있지만 경장부터는 시험과 심사만으로 승진이 가능한 구조다. 근무성적, 경력

등을 평가해 임용 예정자의 5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이때 포함되는 지휘관의 평가 점수가 승진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한정된 자리를 놓고 승진 경쟁을 벌이는 일부 후보자들이 브로커를 통한 청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잇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현 승진 시스템은 민간인 인사 브로커나 학연·지연·혈연 등을 동원하고 돈으로 대수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력에 의해 혼탁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승진 인사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과정과 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근무평정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도 촉구했다.

수면 위로 올라온 경찰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발탁이나 재량에 의한 폐쇄적인 승진 시스템을 폐지하고 하루빨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꾸길 바란다.

無等鼓

메디치상은 프랑스의 4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다. 1958년 소설가이자 건축가였던 장 피에르 지로두가 후원자인 러시아 출신 갈라 바르비산과 함께 제정했다. 스타일이나 문체 등에 있어 기존의 창작과는 다른 상상력을 보여준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문단 이력이나 나이 등과 는 무관하게 작품성에 무게를 두고 수상자를 선정해왔는데 클로드 시몽, 엘리 위젤 등 명망있는 작가들이 영예를 안았다.

1970년부터는 메디치 외국문학상이 추가됐는데, 불어로 번역된 작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 국적이 지산 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소설을 쓴 작가를 선정했다. 지금까지 밀란 쿤데라를 비롯해 움베르토 에코, 폴 오스터, 오르한 파묵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수상했다.

올해 메디치 외국문학상은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작품은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시적인 문체로 풀어냈다. 한강은 1980년 5월 중학생의 죽음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 꿈속에서 보았던 바닷가 인근의 방치된 무덤들을 모티브로

소설을 창작했다.

열마 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글작가대회에 한 작가가 참석해 특별강연을 했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라 자연스럽게 관심은 작가에게 쏠렸다. 그는 "한글, 세계와 화합하다"라는 주제로 평소 생각하고 있는 문학의 본질,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연의 내용은 "역사 속의 일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문학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폭력의 반대편에서 서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북커상을 하는 소설을 쓴 작가를 선정했다. 지금까지 밀란 쿤데라를 비롯해 움베르토 에코, 폴 오스터, 오르한 파묵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수상했다.

올해 메디치 외국문학상은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작품은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시적인 문체로 풀어냈다. 한강은 1980년 5월 중학생의 죽음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 꿈속에서 보았던 바닷가 인근의 방치된 무덤들을 모티브로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기 고



김 동 운
지산체육회 회장

지산지역 한마당 축구대회가 올해도 100회를 맞았다. 지산축구대회는 지난 1921년 일제강점기 시절 옛 광산군 지산면 등지에서 매년 추석 때마다 지역민들끼리 함께 모여 축구를 통해 화합과 결의를 다져온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이어온 지역 체육행사다.

코로나19로 2020·2021년 2년을 제외하고 암울한 일제강점기와 빼어난 한국전쟁에도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대회는 지역 축구대회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1929년에 개최된 경평(서울과 평양) 축구대회보다 8년이나 빠르다. 또 경평축구대회는 1935년에 중단되었지만 지산 축구대회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속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지산축구대회는 1957년 광산군 지산면이 광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